

그리스도인 27.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Christian 27. Christians are sensitive against sin.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혹시 찌개 국물이 옷에 튀지나 않을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앞치마가 준비된 식당이라면 앞치마를 요구하고 그것을 앞에 두른 뒤 먹는다. 왜 그런가?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이 죄로 더럽혀질까 민감하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한다고 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며 신분상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신분과 달리, 상태는 얼마든지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며 죄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고는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특별히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끔 만든 죄들이 내 삶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없다. 죄를 즐기려 한다든지 죄에 대해 부끄럼이 없이 뻔뻔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로마서 6장 1-2절은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²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라고 기록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명목으로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민감하다.

로마서 6장 15절은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요일 3: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셨다. 율법을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 값이 지불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롬 8:1a).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는 사랑, 긍휼 속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20-21)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죄의 종으로 살던 것은 이제 끝났다. 구원받기 전,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죄의 종으로 살며 했던 일들은 다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불편한 일이다.

1863년 미국 땅에서 노예해방 선언이 있었다. 그래도 이후로 흑인들은 백인들을 볼 때 쉽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또 어떤 경우는 백인들의 차별과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들이 노예가 아닌데도 그러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옛날처럼 죄의 종은 아닌데 죄의 영향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해 죽었고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자신이 이용된 것처럼 분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는 노예가 아닌데 자신을 잡아다 일 시키려 할 때 흑인이 분통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민감하다. 자기 삶에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싸우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었을 때도 괴로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도 불편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키려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짓는 일에 대해 겁이 없고 담대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그가 믿는다는 말은 단지 복음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 뿐일 수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라 모셨음에도 죄짓는 일에 대해 돌이킬 마음을 보이지 않고 고집 부린다면, 그는 지금 영적으로 크게 뒤튼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무언가 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민감하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